

#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모여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맛있는 부각으로 행복을 가꾸다

-사회적기업 (사)반딧불나눔복지재단의 해나루 빠삭보삭 부각-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신영현

혹시 해나루 빠삭보삭 부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몇 년간 TV 예능을 통해 갑작스레 큰 인기를 모으면서 자연스레 대형마트나 홈쇼핑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여러 부각 제품 중 하나로 그 이름만 들어도 얼핏 제품의 바삭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사)반딧불나눔복지재단의 주력상품 브랜드입니다.

해나루 빠삭보삭 부각은 충청남도 지역의 로컬 재료만을 사용해 건강과 영양, 지역경제까지 고려해 만들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바로 우리 충청남도의 당진에서 생산되어 전국에 유통, 판매되어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 잡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째 이 해나루 빠삭보삭 부각(이하 해나루)을 생산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판매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사단법인 반딧불나눔복지재단은 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4월에 충청남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습니다.



해나루 빠삭보삭 부각 제품군



해나루 빠삭보삭 부각

(사진 출처 : 사단법인 반딧불나눔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nanoom.or.kr/>)

얼핏 나눔복지재단과 부각이라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에는 단독건물로 해나루 부각을 주사업으로 운영하기까지 남모를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산 로컬 재료로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전문 가공식품 업체로 성장했지만, 초기에는 사회복지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던 정미정 이사장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었지만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재단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나루 빠삭빼삭 부각 행사부스(사진제공 : 반딧불나눔복지재단)

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지자원 마련에 고민하던 중, 2018년 복지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부각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았고, '해나루 찹쌀부각'이라는 작은 사업장을 내고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일자리를 제공하며 수익창출을 통한 사회공헌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재투자를 진행하여 충남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고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주재료로 한 찹쌀부각을 생산하던 중, 우연히 강의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아들과 그 부모들을 접하게 되면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적극 고용하여 고용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확대를 계획하였고, 2021년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만들어 2022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단 사업 활동(사진제공 : 반딧불나눔복지재단)

한편,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개발 및 다각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인기있는 우리나라의 고추류에 해당하는 오크라의 당뇨, 고혈압 예방 등 다양한 영양 효과를 알게 되어 기존의 부각류 제품군에서 찾아보기 힘든 오크라 부각도 주력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반딧불나눔복지재단의 노력은 2019년도 충남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지 3년여 만인 2022년 4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함께 어울려 일하는 해나루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벌이며 조금씩 성장해 온 반딧불나눔복지재단은 지난 21년 제대로 된 부각을 만들어 보겠다며 새로운 건물을 짓고 훨씬 쾌적해진 환경에서 전통방식을 재현해 지역 찹쌀 농가와의 계약 재배 등을 통해 100% 국내산 찹쌀 풀을 발라 일일이 튀기는 수제 부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는 부각 제품(사진제공 : 반딧불나눔복지재단)

정미정 이사장은 맛있고 건강한 찹쌀 부각으로 이름을 알리기까지 힘든 과정들도 많았지만 지금 하루하루 맡은 일을 즐겁게 해내는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는 보람이 더욱 크다며 앞으로 이들과 맛있는 부각을 만들며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취약계층과 함께 전통방식 제조업 육성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